

 행정자치부	참 고 자 료	작성과	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 서울기록관 보존서비스과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
		담당자	과 장 허승원 연구관 나미선
		연락처	042-481-6375 042-481-6393

“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!”
- 국가기록원 5개 전시관 방학 맞이 프로그램 등 즐길거리 풍성 -

-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(원장 이상진)은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원 및 전국 4개 기록관(서울기록관, 대전기록관, 부산기록관, 대통령기록관)별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.
- 본원 및 서울·대전·부산기록관에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 정책 기록물, 국가기록원 소장 세계기록유산, 민간기증기록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,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.
- 서울기록관(성남시 소재)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4~6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‘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기록문화 체험교실’을 운영*한다.

* 운영시간 : 8.9.(수) ~8.11.(금) 14:00~16:30, 8.12.(토) 10:00~12:30 / 총 4회

참여방법 : 7.25.(화) 오전 10시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(1회 60명 선착순 240명 접수)

-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‘세계기록유산이 된 우리나라 기록’에 대한 특강을 듣고, ‘나만의 아트북’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으며,
- 보존서고와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기록의 역사를 둘러보는 한편, 보존서고 제작이나 기록물 사진 이미지 복원 등 기록관리 업무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.

- 현재 서울기록관 1층에서는 ‘기록, 전통에서 한류까지’ 라는 주제로 국가기록원의 주요 기록물과 기록의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시전이 개최(‘17.6.9.~’18.6.8)되고 있다.
 - 이번 전시는 우리 현대사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기록물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, 일제강점기 한글학자들의 육필원고인 ‘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’, 우리나라 최고(最古)의 기상도인 ‘천기도(天氣圖)’ 등 총 150여점의 기록물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풍성하다.
- 부산기록관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5·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‘여름방학 기록문화 체험교실’을 운영*하며,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특강, 조선왕조실록 모의 복원 체험, 보존서고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- * 운영시간 : 8.4.(금), 8.10.(목), 8.11.(금) 09:30~11:30 / 총 3회
 참여방법 : 전화, 이메일 접수(1회 학부모 포함 20명 선착순 접수)
- 특히, 부산기록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존과정 등을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실을 둘러볼 수 있다.
 -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부산기록관의 실제 실록서고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도 볼 수 있으며, 전시관을 둘러본 후 사관 선발 시험도 체험할 수 있다.
- 대전기록관도 기접수된 초·중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기록문화특강,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, 대전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‘2017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’을 운영한다.
- 아울러, 7월말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영상실록 ‘대한뉴스’ 기획전시를 둘러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 간의 역사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.

○ 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(대전시 소재)은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.

-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구역에서는 대한민국 2호 국새, 코끼리 목각(1986.박세직, 버마 내무장관 증) 등 공직자선물, 대통령 순방 등에서 받은 선물을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으며, 서울·부산기록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 서고를 가상현실(VR)로 관람할 수 있다.

- 또한, 강강술래, 월드컵과 올림픽, 전통시장, 버스안내양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보강된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.

□ 한편, 대통령기록전시관(세종시 소재)은 ‘대통령과의 만남’이라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문서, 대통령 의전 차량,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, 개관 1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인기와 호응으로 세종시의 교육·문화·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.

○ 총 4층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전시관은 1층 대통령 상징관, 4층 대통령 역사관, 3층 대통령 체험관, 2층 대통령 자료관 순으로 돌아볼 수 있는데, 특히 3층 대통령체험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, 접견실, 춘추관 등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.

○ 또한, 대전·세종·충청권역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특강, 한지 부채 만들기 등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.

□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“여름방학을 맞아 각 지역 소재 국가기록원 전시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 될 것”이라며, “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기록문화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참고

국가기록전시관 관련 사진

【 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 】



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(본원 전시관)



체험활동 중인 가족(본원 전시관)

【 대통령기록관 】



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



대통령기록전시관 취임 선서 체험

【 부산기록관 】



사관 임명장 체험(부산기록관)



실록 퍼즐 맞추기(부산기록관)

【 서울기록관 】



기록물 복원 체험(서울기록관)



마이크로필름 촬영 체험(서울기록관)



'기록, 전통에서 한류까지...'특별전 전경(서울기록관)



【 대전기록관 】



대한민국 영상실록
대한니우스(대전기록관 전시관)



보존상자 만들기 체험(대전기록관)